법어



庭前楊柳春來靑(정전양류춘래청)이나
人生一去更來難(인생일기갱래난)이라.
欲免生死輪廻苦(욕면생사륜회고)인댄
聞得正法明此事(문득정법명차사)로다.

뜰 앞에 버드나무는 봄이 오면 저절로 푸르지만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렵도다. 누구든지 생사윤회의 고통을 면하고자 할진댄 정법(正法)을 듣고 이 일을 밝힐지니라.

어떠한 것이 이 일이냐?
脚下三尺(각하삼척)이라.
다리 아래 석 자로다.

산승(山僧)이 금일 태공당 월주 대종사 각령(覺靈)전에 법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아 간직하시어 역겁(歷劫)에 매(味)하지 않고 진리의 삼매락(三昧樂)을 누리소서.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반산보적(盤山寶積) 스님이 남달리 발심(發心)하여 정진에 전력을 쏟던 중, 어느 해제일에 다른 처소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걸음걸음 화두를 놓지 않고 가는데 우연히 시장을 지나가다가 식육점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와서, "깨끗한 고기 한 근 주시오." 하니, 주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차수(叉手)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깨끗하지 못한 고기입니까?"

이 말이 들려오는 순간, 보적 스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과 여러 도인께서 설해 놓으신 낱낱 법문에 활발발지(活鏡鏡地)를 얻지 못하여, 또 애를 써서 공부를 지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동구 밖을 지나가다가 상여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여꾼들이 노제(路祭)를 지내고 상구(喪具)를 매면서 선소리 하기를, "청천(靑天)의 붉은 수레는 서쪽으로 기울어가건마는, 알지 못하겠구나. 금일 영혼은 어디로 가는고?" 하니, 상주들이 일제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哭)을 하였습니다.

이 곡하는 소리에 보적 스님은 확철히 깨달았습니다. 그 길로 마조(馬祖) 선사를 찾아가 뵙고 문답이 상통(相通)되어 마조 선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필경(畢竟)에 진리의 일구(一句)는 어떠한고?
到頭霜夜月(도두상야월)이
任運落前溪(임운낙전계)이로다.
마침내 늦가을 달이
집 앞 개울에 떨어져 출렁임이로다.

불기 2565년 7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분향

조전



한국불교와 나라의 큰 어른이신 월주 큰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구도의 삶과, 이웃의 고통을 품어주는 이타행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몸소 보여주신 스님의 입적이 안타깝습니다.

스님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였습니다. 민주주의 실현, 남북 평화, 양극화 해소, 환경보호, 국제 구호를 위해 온갖 궂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셨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때는, 직접 광주를 방문하여 다친 시민과 군인을 보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이웃을 보듬고 함께한다면 우리 국민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큰스님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7월 26일 김제 금산사서 봉행됐다. 사진은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영결식에서 법어를 하고 있는 모습.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7월 22일 원적에 들었다. 월주 대종사는 종단 개혁을 이끌며 현재 조계종 종무행정 체계의 기틀을 잡은 현대 한국불교사의 산 증인이다. '깨달음의 사회화'를 주창하며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향성을 제시해 큰 족적을 남겼다. 대종사의 삶 자체가 임종게였다고 할 만하다. 세연을 다한 대종사는 적멸의 길로 나아갔다. 7월 26일 김제 금산사에서 봉행된 영결식과 다비식 현장을 담았다.

〈편집자 주〉



장의위원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영결사를 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종단 대표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장이 대종사 영전에 헌화하고 있다.



안숙선 명창이 대종사가 생전 좋아했던 심청가를 조가로 부르고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 대종사 유훈 계승 최선"

월주 대종사 문도 대표 스님들 7월 25일 금산사서 기자간담회

"평생 '깨달음 사회화' 강조 큰가르침을 전했던 선지식" 활동계승 논의 지속하겠다

김제 금산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월주 대종사 문도 스님들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원적에 든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제자들이 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을 회고하고 이를 계승·선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님들은 특히 "체구는 작으셨지만 정말 거인같은 스승이셨다"며 "가르침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한국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금산사 총무국장 화평 스님 등 문도 대표들은 7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종사 입적 이후 처음으로 문도 스님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별도로 준비한 문건 없이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자유롭게 진행됐다.

일원 스님은 "황망하게 큰스님을 보낸 제자들은 그 슬픔을 감출 길이 없다"며 "많은 분들이 추모의 뜻을 전해오고 있어 영결식을 앞두고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스님들은 은사 월주 대종사와의 일화를 회상하며 크나큰 가르침을 재차 되새겼다. 특히 "한평생 발디딘 곳에서 보살도를 실천하셨기에 그 삶이 곧 수행과 둘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대승보살의 삶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화평 스님은 대종사의 빈자리를 묻는 질문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안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스님은 "대종사의 빈자리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며 "복지관장 소임을 맡고 있던 제게 항상 '보살행이 바로 복지이며 복지를 잘 하는 것이 보살행'이라고 강조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스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귀일심원 요익중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복지에 형식적으로 임하지 말고 매순간 모두를 진심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생전 나눔의집 사태로 인한 상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들에 따르면 월주 대종사는 생전 "할머니들을 잘 모시는 일이야 말로 제2의 항일운동"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스님들은 "한평생 진심으로 삶을 살아왔던 분이시고 명예를 중시했기에 나눔의집 사태와 관련한 상심도 적지 않았다"며 "직무정지까지 당하면서 명예가 실추되고 지난 29년간의 원력까지 부인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고 설명했다.

나눔의집과 관련한 명예회복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자연스레 정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우 스님은 "나눔의집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 현재의 혼란이 어떤 결과를 맺을까에 대해서는 향후 지켜볼 일"이라며 "대종사께서는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29년 간 한 번도 보수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헌신하셨지만, 스스로 헌신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셨다. 그 원력이 언젠가 진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평 스님도 "나눔의집을 보면 그 역사적 인식이나 의미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과 신뢰, 지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쉽게도 업무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상처가 되고 혼란이 야기됐다. 저희 입장에서는 혼란은 있었지만 앞으로, 잘 정리하고 해결해서 어떻게 다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안팎으로 큰 족적을 남긴 만큼, 이를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

도법 스님은 "대종사의 사상이나 정신, 이를 구현한 활동과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만만한 일들이 아니다"며 "더욱이 대종사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현재 대종사의 임종을 맞이하고 상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쁘다. 앞으로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평생 모든 가르침을 삶 그 자체로 드러냈기에, 제자스님들의 뇌리에 각인된 일화들도 적지 않았다.

도법 스님은 "일생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과 가르침은 양적으로 대단히 많다. 핵심적으로 천지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이고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한 몸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평생 살아오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를 당부하셨다"며 "입적을 앞두고도 대종사께서는 일생 동안 살아온 삶 자체가, 당신이 남긴 가장 정직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열반송을 따로 남길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도 보이셨다"고 전했다.

성우 스님은 "일상적이고 대단히 소박하지만 매순간 철저하게 삶을 바꾸어 나가신 분"이라며 "식생활을 비롯해 실생활 하나하나에서 매우 절제된 삶을 사셨다. 일반적인 수행은 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형태이지만, 대종사는 삶 자체를 수행으로서 가꾸어 나가셨다"고 회고했다.

일원 스님도 "한평생 한 입으로 두 말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며 "저의 삶을 지탱해 주는 큰 가르침을 넘치게 받았다. 이를 따르기 위해 한평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들은 월주 대종사의 수행자적 면모에 대해서도 현대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법 스님은 "대종사의 삶은 매우 총체적이고 심층적이기에, 전통적인 불교수행의 시각에서 보면 수행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지 않지만 삶 자체가 이미 수행이었다"고 회상했다.

스님은 "일생 당신이 서 있는 현장을 떠나신 적이 없으며 늘 지금 여기 딛고 서있는 현장에서 삶을 가꾸어 오신 분"이라며 "더러운 연못에서도 피어난 향기로운 연꽃과 같이 오염의 현장에서 당신의 삶을 더욱 청정하게 피워내신 분이다. 그분의 수행은 특별한 형식이 아닌, 삶이 곧 수행이 되고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데 닿아있다. 곧 대승보살도의 삶"이라고 추모했다.